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24.(화) 12:00
(지 면) 2026. 11. 25.(수) 조간

올해 최고의 정부혁신, 국민과 함께 뽑는다 '2026 정부혁신 왕중왕전' 개최

- 온라인 정책소통과 현장 투표 올해 처음 도입해 심사 전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 25일부터 사흘간 정책홍보관 운영 통해 13개 우수 사례 전시물·영상으로 소개
- 27일 최종 경진 대회에서 국민·전문가 평가단이 함께 심사해 올해의 왕중왕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 정부혁신 박람회'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에서 11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정부혁신 왕중왕전' 최종 결선에 진출한 13개 사례를 소개하는 정책홍보관을 운영하고, 27일(금) 경진 대회를 개최해 올해의 정부혁신 '왕중왕'을 최종 선정한다.

이번 왕중왕전은 '정책소통' 평가와 '현장 투표'를 처음 도입하는 등 우수 사례 선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책 담당자와 직접 묻고 답하는 정책소통 평가부터 정부혁신 박람회 내 현장 투표, 경진 대회 최종 심사까지 올해 최고의 정부혁신을 뽑는 전 과정을 국민과 함께한다.

>> 올해 처음 도입한 '온라인 정책소통'과 '현장 투표', 생생한 국민 목소리 담아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을 대상으로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경진 대회다. 올해는 ▲참여·소통 혁신, ▲기본사회 혁신, ▲행정 혁신 등 3개 분야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높인 사례를 선정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254개 기관에서 546개 사례가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평가를 거쳐 41건이 본선에 올랐다.

본선 첫 단계로 추진된 ‘온라인 정책소통’은 국민의 정책 이해를 높이고, 정책 추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국민이 정책 소개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을 남기면 정책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는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평가 결과는 전문가 심사와 합산되어 최종 결선 13개 사례를 가려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혁신 박람회 기간(11월 25일~27일) 운영되는 정책홍보관에서는 관람객이 사례별 전시물과 영상 자료 등을 통해 일상 속 불편이 어떻게 해결됐고,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본 뒤 현장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혁신 퀴즈’ 같은 참여 행사도 마련해 정부 정책을 더욱 쉽고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다. 국민은 자신의 의견이 왕중왕전 심사에 반영되는 과정을 체험하며 정책 참여에 대한 보람과 성취감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13개 결선 사례 중 국민의 선택은?, 27일 경진 대회서 왕중왕 결정

11월 27일 열리는 경진 대회에서는 결선에 진출한 13개 사례의 담당자가 정책 추진 과정과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마지막 경합을 펼친다. 심사는 전문가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함께 진행하며, 국민평가단은 각 사례의 발표를 듣고 ‘내 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혁신’을 꼼꼼히 살펴보고 평가한다. 최종 순위는 ▲온라인 정책소통, ▲정책홍보관 현장 투표, ▲경진 대회 발표 등 본선 3단계의 평가 결과를 종합해 최종 결정된다.

노홍석 행정안전부 참여혁신조직실장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춰 제도와 일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현장에서 효과를 확인한 좋은 사례가 다른 기관의 변화로 이어지고, 더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참여혁신조직실 혁신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박종옥 (044-205-2201)
		담당자	사무관	이정흔 (044-205-221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